

# 윤덕여호, 이제 프랑스 여자월드컵으로

## 우즈베키스탄과 2018 아시안컵 예선 B조 최종전 4-0 승리... 본선 티켓 확보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요르단 여자 아시안컵 본선행 티켓을 따낸 윤덕여호가 이제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진출권을 노린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 여자 아시안컵 예선 B조 최종전에서 4-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한국은 3승1무(승점 10)를 기록하며 북한(3승1무·승점 10)과 동률을 이뤘지만 골득실(한국 20·북한 17)에 앞서 1위를 차지해 아시안컵 본선 티켓을 품에 안았다.

한국은 인도와의 1차전에서 10-0 대승을 거뒀고 북한과의 2차전은 1-1로 비겼다. 이후 3차전 홍콩을 상대로 6-0 승리를 챙긴 한국은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을 4-0으로 제압하면서 무패로 귀국길에 올랐다.

1차 목표를 달성한 여자대표팀은 내년 4월 1일부터 22일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무대에서 월드컵 진출권 획득을 노리는 2차 목표를 나선다.

아시안컵 본선은 8개 팀이 참가한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에 배정된 5장의 티켓을 따내야 2019년 프랑스령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본선 행을 확정지은 팀은 개최국 요르단을 포함해 전 대회 1~3위 일본, 호주, 중국이 진출했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2018 여자 아시안컵 예선 B조 최종전에서 4-0으로 승리했다.

여기에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이 합류하면서 8개국이 5장의 월드컵 진출권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여자축구 강호인 일본, 호주,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아 월드컵 본선 진출 전망도 밝다. 한편 역사적인 평양 원정경기를 마치고 돌아온 여자대표팀은 1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대표팀은 해단식 후 곧바로 소속팀으로 복귀해 오는 14일 개막하는 WK리그 준비에 나선다. /김민근기자

##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 출범식 15일 개최

사단법인 남원 거점 스포츠클럽(회장 진봉모)이 15일 오전 11시 문화체육센터에서 이환주 남원시장 및 대한체육회, 전라북도 체육회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물놀이팀의 신명나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 장으로부터의 단기수여, 현판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11월 공모사업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와 함께 선정된 남원시는 3년간 8억원씩 총 2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도시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이 활성화 되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포츠 인재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며 시비 지원 등으로 남원 거점 스포츠 클럽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남원=유영철기자

## 남자 탁구 대표팀, 아시안선수권 준우승

만리장성은 여전히 견고했다. 김택수 감독 체제로 새 출발에 나선 한국 남자 탁구대표팀이 아시안선수권 정상 등극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은 12일 중국 우시에서 열린 제23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게임스코어 0-3으로 패했다.

전날 일본을 누르고 12년 만에 결승 무대를 밟은 남자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을 넘지 못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남자 대표팀은 1996년 헝가리 이후 21년 간 우승이 없다. 남자 대표팀은 장우진(미래에셋대우)-이상수-정상은(이상 삼성생명)을 차례로 내세웠다. 일본전 엔트라이에서 장우진과 이상수의 순서만 바뀌었다.

중국은 세계랭킹 1~3위인 마룽, 판젠둥 쉬권을 내세웠다. 1단식 주자 장우진은 마룽에 1-3(12-14 11-4 10-12 3-11)으로 졌다. 2세트를 따냈지만 듀스가 벌어진 1,3세트는 모두 내준 것이 아쉬웠다.

이상수와 정상은은 판젠둥과 쉬신에게 한 세트도 얻지 못했다. 두 선수 모두 3세트를 듀스까지 끌고 갔지만 집중력 싸움에서 밀렸다. 단체전을 마친 남녀 선수들은 13일부터 개인전에 돌입한다. /김민근기자

# 아사다 마오, “작년 12월 최악의 성적 내고 은퇴 결심”

### “새로운 목표 찾아 웃는 얼굴로 앞으로 나아가고파”

일본 최고의 피겨 스케이팅으로 사랑받으며 한국의 김연아 선수와 경쟁했던 아사다 마오가 1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전일본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결과를 낸 이후 고민했고 2월에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사다는 앞서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피겨스케이팅 선수생활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아사다는 김연아와 함께 세계 여자 싱글의 양대산맥을 이뤘지만, 지난해 12월 개최된 전일본피겨선수권대회에서 출전 선수 24명 가운데 12위에 그치며 기량이 완전히 퇴보한 모습을 보였다.

NHK에 따르면, 12일 기자회견에는 일본은 물론 외국 언론들의 취재진까지 약 400명이 몰려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아사다는 “많은 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팬들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목표로 해온 평창동계올림픽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지난 2월에 은퇴를 결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하고, 일본의 여자 싱글 올림픽 출전권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은 은퇴를 결심하는데 요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가장 인상에 남아있는 연기로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쇼트 프로그램을 꼽았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크게 뒤처졌지만 자유 프로그램에서 만회하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김연아는 석연치 않은 판정 탓에 은메달을 땀지만 금메달을 딴 아델라 소트니코바(러시아)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았다.

반면 아사다는 6위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아사다는 자신의 대명사인 트리플 악셀(3 회전 반)에 대해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회상하며 웃었다.

아사다 마오는 지난 10일 블로그를 통해 은퇴를 발표한 이후 이틀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말을 해주 감사했다면서 “스케이팅 인생에서 경험 한 것을 잊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 웃는 얼굴

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오사카시와 나고야에서 열리는 아이스쇼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 축구협회, 포스텍과 손잡고 IT기술로 경기력 강화

대한축구협회(협회)가 포스텍(포항공대)과 손잡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축구대표팀 경기력 향상에 나선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포스텍 김도연 총장은 1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축구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김영석 포스텍 스포츠융합과학센터 교수 등이 참가했다.

협회와 포스텍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국가대표팀 경기력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무인카메라 중계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교육 등 축구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김영석 포스텍 스포츠융합과학센터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각급 대표팀 선수들의 특정 패턴과 경기력을 분석할 계획이다”며 “인공지능 기반의 개발을 통해 선수들의 수면 상태, 근육피로도 등 고도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컨디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 /김민근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